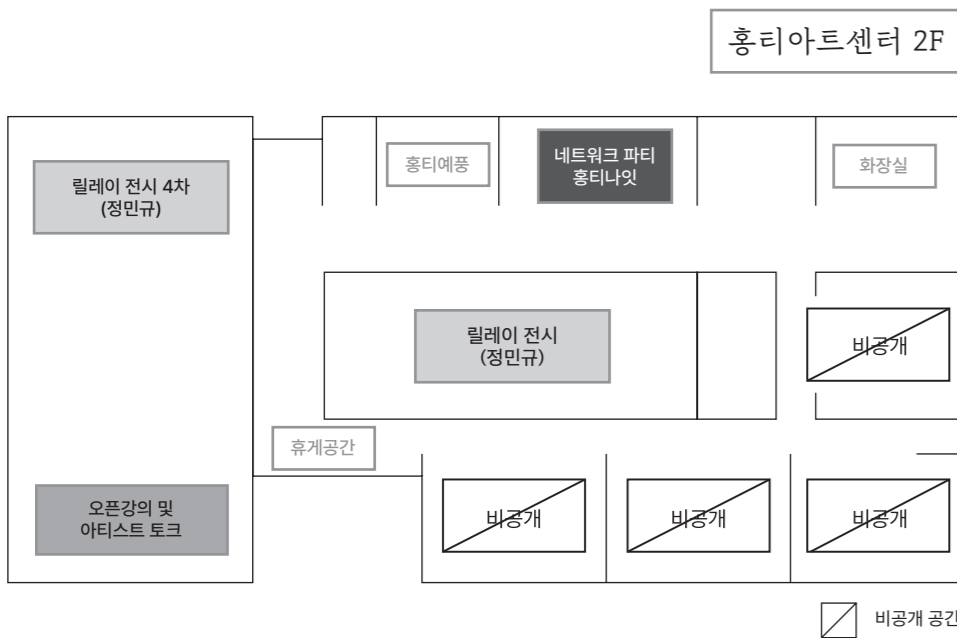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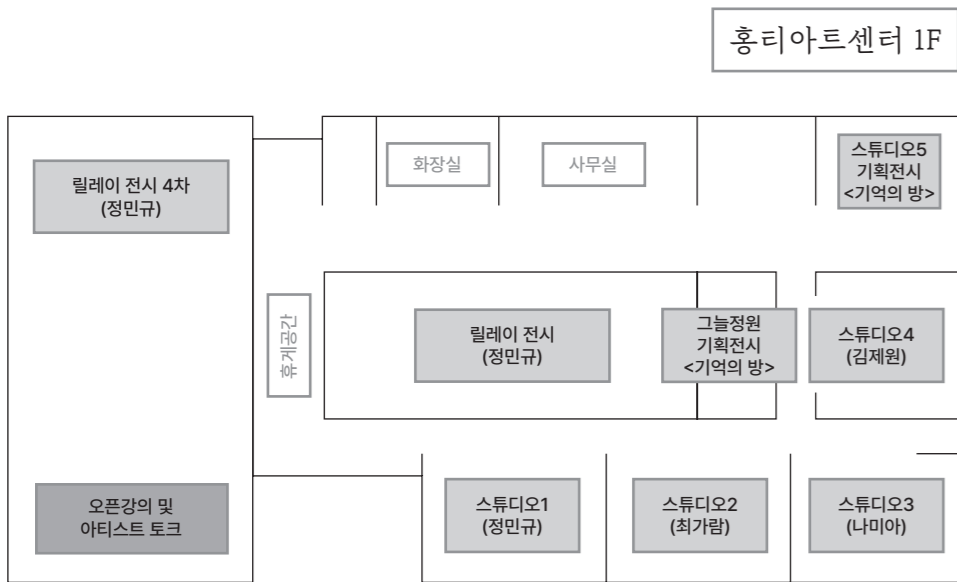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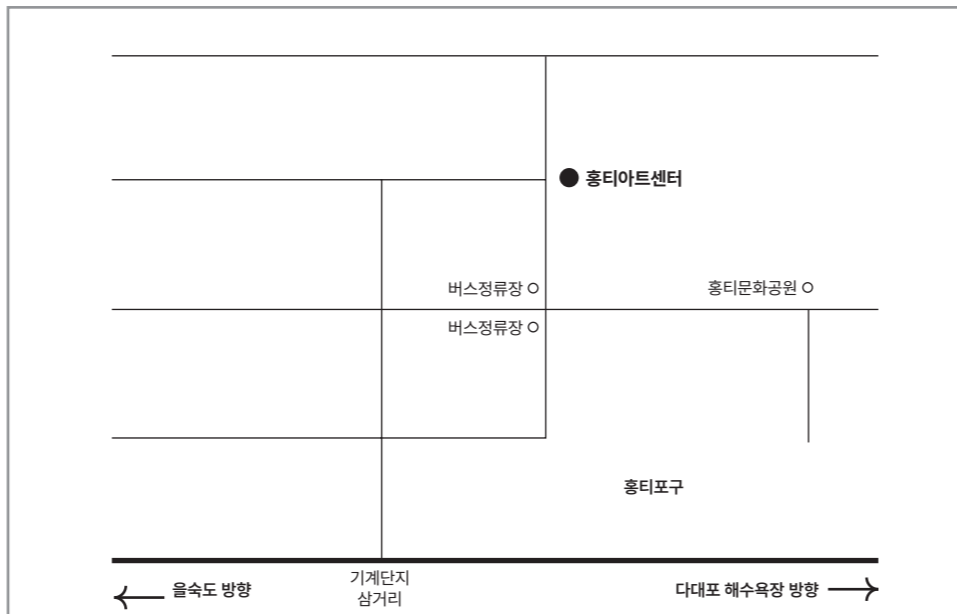


# 행사 배치도



# 오시는 길



**홍티아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다대동) 051-263-8661~3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 1번출구 ⇒ 하삼동카페 앞 마을버스 5번 또는 3-1번 승차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정류장 하차

지하철 1호선 괴정역 6번 출구 ⇒ 괴정우체국 앞 마을버스 5번 승차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정류장 하차

지하철 1호선 신평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3-1번 승차  
⇒ 금강공업-홍티아트센터 정류장 하차

**2022년 홍티아트센터 상반기 오픈스튜디오 <끝의 시작: 上편>**  
(재)부산문화재단 발간번호 2022-007호

**발행일** 2022. 06. 20.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홍티아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다대동)  
T. 051-263-8661  
F. 051-263-8660  
E. hongti@bscf.or.kr

**기획 및 편집**

총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책임: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장 허장수  
담당: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 이아름  
지원: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 서현규, 공보배  
입주작가: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김제원, 나미아, 정민규, 최가람  
**디자인 및 제작**  
에프스튜디오

# 2022년

# 홍티아트센터

# 오픈스튜디오

# 끝의 시작: 上편

2022. 6. 24.(금) ~ 25.(토)

**기획의도**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beginning has begun.”  
시작의 끝은 끝부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中」

2022년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4명은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있다. 지난 5개월간의 이야기를 상반기 오픈 스튜디오 <끝의 시작: 上편>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안녕을 고한다.

끝이라는 슬픔과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희망의 경계에서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무지개 언덕 너머의 새로운 끝과 시작을 기대해본다.

스튜디오 개방	2022. 6. 24.(금) 오전 11시~오후 5시 2022. 6. 25.(토) 오전 10시~오후 5시
기획전시 <기억의 방>	2022. 6. 24.(금)~6. 29.(수) 오전 10시~오후 6시
오픈강의	2022. 6. 24.(금) 오후 3시
아티스트 토크	2022. 6. 24.(금) 오후 5시
네트워크 파티 <홍티나잇>	2022. 6. 24.(금) 오후 6시
홍티예품 체험프로그램 <홍티에서 만난 내 친구>	2022. 6. 25.(토) 오전 10시~오후 5시



# 행사 안내

프로그램	스튜디오 개방	오픈강의 및 아티스트 토크	네트워크 파티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구역	스튜디오 #1~4(1F)	1층 전시실	세미나실 및 휴게정원	스튜디오 #5 (1F)	세미나실 및 휴게정원
시간	#1 정민규 #2 최가람 #3 나미아 #4 김제원	강유진, 반이정 및 상반기 입주작가	참석자 전원		
10:00	6. 24.(금) 11시~17시 6. 25.(토) 10시~17시		오픈강의 6. 24.(금) 15시~17시	전시 공간 개방 10시 ~ 18시	6. 25.(토) 10시~17시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아티스트 토크 6. 24.(금) 17시~18시		
18:00			6. 24.(금) 18시~19시		
19:00					

# 스튜디오 개방

입주작가 스튜디오 개방

누가 김제원, 나미아, 정민규, 최가람

언제 2022. 6. 24.(금), 오전 11시~오후 5시

2022. 6. 25.(토), 오전 10시~오후 5시

어디서 홍티아트센터 1층 Studio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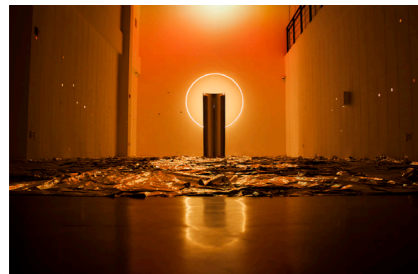
무엇을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스튜디오 #1	정민규	객실 종류	사진 및 설치
	스튜디오 #2	최가람	무한 루프: schema	설치 및 사운드아트
	스튜디오 #3	나미아	공간: 나를 품은	공간설치 및 인터랙티브 아트
	스튜디오 #4	김제원	끝의 시작: 다시 발을 내디디며	드로잉 및 설치



정민규, 예술가의 초상\_Adjina Na Patalung, 2019, Pigment Print, 133x200cm



최가람, AAAA, 2019, 스피커, 마이크, 컴퓨터, 커스텀 프로그램, 가변 설치



나미아, 잊지 않으리: 기억을 위한 기념비, 2022, 공간, 철 파이프, 스테인리스 패널, LED, 조명, 전기부품, 아크릴, 알루미늄 비닐, 가변 설치



김제원, 끝의 시작 (上), 2022, 용해성 종이, 물, 대포 바닷물, 잉크펜, 아크릴, ABS, PC, LED, 180x90x120cm, 부산 서구 아미로 86-1 설치 전경

# 기획 전시 「기억의 방」

누가 김제원, 나미아, 정민규, 최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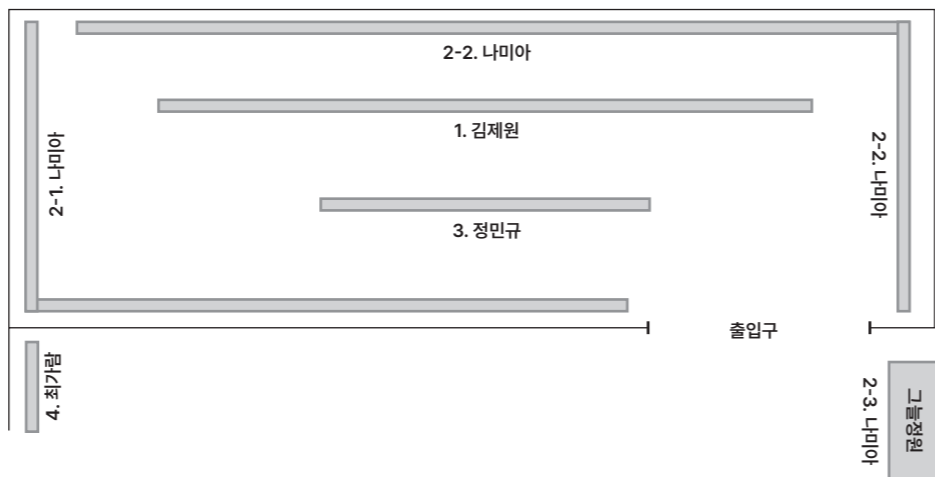
언제 2022. 6. 24.(금)~29(수), 오전 10시~오후 6시

어디서 홍티아트센터 1층 Studio #5

무엇을 당신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당신의 잊고 싶은 기억을 지우며, 그리고 당신이 함께하고 싶은 기억을 이곳에 남겨주세요.

## 전시 배치도

\*본 전시는 체험형 전시프로그램입니다



## 작품 리스트

- 1-1. 김제원, 숨 드로잉, 2022, 용해성 종이, 잉크펜, 빛물, 43.5x31cm
- 1-2. 김제원, 숨 모으기, 2022, 유리병, 제습기 물, 가변설치
- 1-3. 김제원, 작가의 숨, 2022, 디퓨저, 제습기 물, 가변설치
- 2-1. 나미아, Tele-message, 2022, 녹음모듈, 스피커, 전자부품, 가변설치
- 2-2. 나미아, 그곳을 넘어서면, 2022, LED, 조명, 특수비닐, 아크릴, 가변설치
- 2-3. 나미아, 흙: 너를 다시만날 #2, 2022, 플라스틱 조형물, 흙, 돌, 식물, 조명, 와이어, 가변설치
3. 정민규, 무제 #0624, 2022, Aluminium Printed Braille Label, 10x10cm
4. 최가람, 비사행성 오락, 2022, MDF 합판, 페인트, 동전감지기, LED발광 버튼, 모터, 모터샤프트, 아두이노, 12V DC전원, 가변설치

**김제원의 기억**      끝의 시작: 숨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내밀하고 사적이다. 같은 장소에 서서 하나의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각자 다르게 기억한다. 개인의 기억은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온전히 보여줄 수 없으며, 말이나 글로써도 그 전부를 전달 할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하게도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2022년 홍티아트센터에 입주한 4명의 작가들이 지난 5개월간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던, 작가에게는 '집'이나 '침터'로서의 역할을 해준 작가의 방에 제습기를 두어, 작가들이 숨을 쉬는 공기와 습기를 물로 변환했다. 그리고 물에 녹는 용해성 종이 위에 각각의 작가들이 기억하는 부산이라는 장소를 기록하고, 부산에서 내린 빗물을 받아 '물에 녹는 드로잉'을 제작하였다. 이 드로잉은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남겨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작가들의 숨결이 담긴 제습기의 물을 공병에 담아 작가의 이름과 물을 채집한 날짜를 적어 드로잉과 함께 보여주고, 낮은 숨처럼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디퓨저(가습기)에 이 물을 담아 작동시켜 <기억의 방>을 다시 4명의 작가들의 숨결로 채우고자 한다.

**나미아의 기억**      그곳을 넘어서면

'기억'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같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억' 위에 서 있다. 네 명의 작가들의 스튜디오와 동일한 형태의 스튜디오 #5 공간에 들어선 순간,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은 해체된다. 네 명의 작가들의 기억을 품은 공간은 선형적 시간의 흐름에 속하지 않은 오묘한 공간으로 변형되어 관람객들을 다양한 시공간감 체험 속으로 판타지 공상과학 풍의 분위기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Welcome! To Beyond!"

**정민규의 기억**      부재중 기억

이것은 특정한 감각 기관과 기억의 관계에 관한 생각이다. 어쩌면 기획 전시 때문에 떠올리게 된 어떤 사람들에 관한 사적인 기억일 수도 있겠다. 기억이란 단어를 점자로 제작한 후, 전면을 유리로 보호해 점자의 본래 기능을 잃게 했다. 누군가에게는 시각적으로 식별되지만 쉽게 인식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보존을 위해 제작된 유리가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기능하며 차가운 표면만이 감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각 기관의 감각이 부재할 때 기억의 메커니즘은 어떤식으로 작동될까. 시각 기관을 이용한 감각이 원활히 작동될 때 기억하게 되는 것과 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기억하고 있을까?

**최가람의 기억**      비사행성 오락

이 게임기는 관람객이 동전을 넣고 플레이할 수 있으며, 동전을 넣고 3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면 룰렛이 돌아간다. 모든 버튼의 색깔은 흰색이고 룰렛의 각 칸의 색도 모두 흰색이다. 어떤 버튼을 눌러도 돌아간 룰렛의 색깔과 같아 당첨이 되고 넣었던 동전이 당첨금으로 그대로 나오게 된다. 어렸을 적 이러한 게임기에 동전을 넣고 플레이했던 기억을 돌아보면 당첨이 되고 동전이 나올 때 기뻐기도 했지만 당첨이 되지 않아도 반짝거리는 불빛과 버튼을 누르는 행위, 룰렛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즐거웠던 듯하다. 이런 기억 속의 게임기를 직접 제작하면서 게임의 로직을 바꾸어 오로지 플레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행성 게임기와 같은 형태이지만 누구도 지지 않고 누구도 이기지 않는 본래의 목적성에서 벗어난 것을 만든다. 이 작품은 보통 문구점의 문 옆에 배치되어 있던 게임기처럼 전시장 문 옆에 배치되어 관객을 맞이하고 전시장 공간 자체의 문맥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오픈 강의 「현대미술 현장의 동향과 변화」

누가 반이정 미술평론가

언제 2022. 6. 24.(금), 15시      어디서 홍티아트센터 1층 전시장

## 아티스트 토크

참여작가 김제원, 나미아, 정민규, 최가람

사회자 강유진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패널 반이정 미술평론가

언제 2022. 6. 24.(금), 17시      어디서 홍티아트센터 1층 전시장

# 네트워크 파티 「홍티나잇」

누가 참여자 전원

언제 2022. 6. 24.(금), 18시      어디서 홍티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및 휴게정원

## 홍티예품 체험프로그램

### 「홍티에서 만난 내 친구」

누가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생 대상

언제 2022. 6. 25.(토), 10시~17시

어디서 홍티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및 휴게정원

무엇을 홍티아트센터를 방문한 어린이 대상 형겅 및 목각 인형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